

쑹쥘 칭화대학기업집단 총재 방한 (동아일보 2000.09.01)

[클로즈 업] 쑹쥘 칭화대학기업집단 총재 방한

“한국은 ‘정보기술(IT)산업의 현지화’ 를 위한 좋은 모델입니다.”

한국과 중국간의 IT 산업 교류증진을 위해 마련된 ‘한중 IT 포럼’ 참석차 대표단을 이끌고 방한한 칭화(淸華)대학기업집단의 쑹쥘(宋軍 · 39)총재는 1일 “중국의 IT 산업은 현재 기초를 다지고 있는 단계”라며 이같이 말했다. 쑹총재는 “중국은 현재 컴퓨터 네트워크 등 각종 IT 산업의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아 투자가 중복되는 등 낭비가 많다”며 “따라서 ‘IT 산업의 현지화’ 를 위한 표준화작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쑹총재에 따르면 문화적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과 한국이 IT 분야에서 협력하면 서로에게 큰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 쑹총재는 그러나 “한국과 중국은 현재 정보교류 차원 이상의 협력과 협력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칭화대학기업집단은 컴퓨터 관련제품을 생산하는 칭화 쑤광(紫光) 등 70 여개의 정보산업분야 기업을 거느리고 있는 지주회사. 이들 회사들이 생산하는 부가가치는 지난해말 현재 중국 GNP 의 1%에 해당할 만큼 크다고 한다.

베이징(北京) 시내의 중관춘(中關村)이 ‘중국의 실리콘 벨리’ 로 불리는 이유도 바로 칭화대학기업집단 소속의 기업들이 모여 있는 ‘칭화 사이언스 파크’ 가 바로 그 지역 한가운데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386 세대’ 에 해당하는 쑹총재는 최근 중국의 차세대 지도자로

떠오르고 있는 이른바 '칭화방(淸華幫)'으로 분류되는 인물. 칭화방이란 '중국의 MIT'로 불리는 칭화대 출신의 정재계 인사들을 일컫는 말로 주룽지(朱鎔基)총리와 후진타오(胡錦濤)부주석, 우방궈(吳邦國)부총리 등이 모두 칭화방이다. 최근 들어 천위안(陳元) 인민은행 부행장 등 경제계로의 진출도 두드러진다. 지난달 31 일 내한한 송총재는 엠차이나타운닷컴 등에서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주최한 IT 포럼에 참석한 데 이어 서울시장을 면담하고 2 일 중국으로 돌아간다.

<하종대기자>orionha@donga.com

<http://www.donga.com/fbin/output?sfrm=1&n=200009010345>